

한국개혁주의 교회의 바람직한
예배유형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 실천신학전공
정 덕 진

한국개혁주의 교회의 바람직한 예배유형연구

지도교수 김 재 규 교수

이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함

1995년 12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 실천신학 전공
정 덕 진

정덕진의 졸업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俞 在 奎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년 12월 일

감사의 글

지금까지 배움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논문을 직접 지도해 주시면서 날카로운 비판과 아낌없는 격려로 학문할 수 있는 자세를 북돋아 주셨던 김재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신대원의 생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한없는 배움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물론 괴롭고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이 순간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결실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염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를 훈련시켜 주셔서 목사가 되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해주신 김재규 목사님과 성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없이 내조해온 아내와 아들 희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을 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1995년 12월 일

정 덕 진

목 차

I. 서 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
II. 예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A. 예배의 정의 -----	4
1. 예배의 용어 -----	4
2. 예배 정의의 해설 -----	5
3. 예배의 목적 -----	7
B. 예배의 성서적 근거 -----	7
1. 구약의 근원 -----	8
2. 신약시대의 예배 -----	11
C. 예배의 역사적 배경 -----	13
1. 초대교회의 예배 -----	13
2. 중세교회 시대의 예배 -----	15
3.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	16
4.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 -----	18

D. 예배의 신학	-----	19
1. 구원계시에 기초한 예배	-----	20
2. 그리스도 중심	-----	20
3. 성령안에서 예배	-----	21
4.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예배	-----	22
III.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	23
A. 한국 개신교 예배의 제유형	-----	23
1.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유형	-----	24
2. 선교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문화 유형적인 예배	-----	27
B. 기독교 청소년 문화와 예배	-----	30
1. 청소년 문화의 이해	-----	31
2.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육성	-----	33
3. 기독교 청소년과 예배	-----	34
C. 한국 개신교 예배갱신의 필요성	-----	35
IV. 개혁주의 예배모범 연구	-----	39
A. 개혁파 교회의 예배 특징	-----	39
1. 하나님 말씀 중심	-----	39

2.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높이는 일	40
3. 자유로운 예배	41
4. 공동성의 특징	41
B. 예배의 모범을 결정하는 원리	41
C. 예배모범의 구성요소와 순서의 배열	43
1. 예배의 구성요소	43
2. 예배 순서의 배열의 구성원리	51
D. 예배모범 모델	53
1. 주일 공예배 순서의 한 모델	54
2. 바람직한 예배유형과 그 방향	57
V. 결 론	59
참 고 문 헌	61

I. 서 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교회의 중요한 의무와 특권의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보전하는 일이다.¹⁾ 그러므로 교회의 큰 사명이 있다면 성도들이 올바른 예배를 소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갖는데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심일 뿐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교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토착화된 여러 공적예배를 가지고 있다. 새벽예배, 철야예배, 구역예배, 추도예배, 수요예배 등, 이 많은 예배들은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너무 자주 행하는 예배로 인하여 예배가 점점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예배에만 참석하면 예배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예배의 본래 의도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오래 전부터 뜻있는 신학자들에 의하여 예배 갱신에 대한 경종으로 울려져 왔으며, 예배에 대한 자기이론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한 문제 의

1) F.M.지글러, 예배학원론, 정진환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3), p.13.

식과 함께 예배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²⁾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예배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자기이론을 가지지 못한 채 예배의 전통적인 매카니즘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에 와서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정확히 관찰해 볼 때 예배의 순서가 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되며 예배 순서의 내용이 다양할 뿐아니라 그 어떤 순서의 통일성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의 올바른 이해와 예배의 실재를 형성하는 신학적 원리와 그 통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예배순서를 중심해서 볼 때,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예배의 실제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교회도 개혁주의에 입각한 개혁주의 예배모임을 연구하여 우리의 실제 예배에 적용 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예배를 대비해 본다는 뜻에서 본 논문을 목적으로 삼았다.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지금까지 발간된 예배학에 관한 책들과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여 개혁주의에 입각한 예배모범 연구를 성서적, 역사적 자료에 비추어 시대적으로 이루어진 예배들을 조명해 보고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의 예배 순서들을 수집 검토하여 본 논문의 연구

2) 정일용, 기독교예배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솔로몬, 1993), p.240.

의 방법으로 삼았다.

따라서 제 I장에서는 논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밝히고, 제 II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예배의 정의, 예배의 성서적 근거, 예배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예배의 신학을 살펴 보았다.

제 III장에서는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에 대한 필요성으로써 한국 개신교 예배의 제 유형을 살펴보고, 내일의 주역이 될 기독교 청소년의 문화와 예배를 검토해 보고 한국 개신교 예배 갱신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았다.

제 IV장에서는 개혁주의 예배모범 연구로서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특징과 예배모범을 결정하는 원리와 예배모범을 구성하는 요소와 예배순서 배열의 구성원리를 검토해 보고, 예배모범 모델을 제시해 보고, 바람직한 예배유형과 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제 V 장에서는 결론으로써 연구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바람직한 개혁주의 예배모범 연구에 대한 몇가지 제안과 함께 전체적인 맺음의 말로서 이 논문을 마칠 것이다.

II. 예배에 대한 이론적 고찰

A. 예배의 정의

1. 예배의 용어

“예배(worship)”라는 말은 그 용어상으로 볼 때 영어로 색슨어인 “Weorthscipe”에서 유래 되었는데 이것은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뜻을 가진 합성어로서 그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이다.³⁾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⁴⁾ 이러한 예배의 용어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배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용어인 카보드(kdbod) 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게”, “존귀함”, 을 뜻한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말의 뜻은 “광채로 인한 밝음”이다(겔1:4, 사6:3). 이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엄위한 영광을 나타낸다.⁵⁾ “영광”으로 번역된 신약성서의 용어인 독사(doxa)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가치 평가를 표현한 말이다.

3) F.M.지글러, op.cit., p.18.

4) Ibid.

5) 정일찬 편, 성서대백과, 제5권, (서울 : 기독지혜사, 1980), p.770.

둘째, “예배”로 번역된 구약성서의 용어인 사하아(shachah)이다. 이 뜻은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타내는 구약성서의 의미는 “종교적인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을 겸하여 마음 혹은 몸을 통하여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이다. 신약성서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용어는 헬라어의 프로스쿠네오(προσκυνεω)로서 그 문자적인 뜻은 “누구의 손에 입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이다.

셋째, 아바드(abhadh)가 있다. 예배식(liturgy)이라는 이 용어는 “섬긴다” 혹은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 라이틀기아(λαιτυργια)에서 유래했다. 구약성서에서 공예배에 사용된 용어는 바로 이 아바드(abhadh)이다. 신약성서에서 이 용어는 의식적인 일과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이 낱말은 그리스도의 직분(히8:6)과 교회의 예배(행 13:2)를 표시한다.⁶⁾

이상의 세 개의 대표적인 예배의 용어 속에 나타나 있는 뜻을 종합하여 보면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경배하고 복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2. 예배 정의의 해설

예배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신비이다. 예배는 계시와 신비 둘 다이다. 사람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비의 면전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6) F.M.지글러, op. cit., p.19.

경험하다.

둘째, 축제이다. 예배는 복음의 경축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이 환희로 나타나는 축제이다.⁷⁾

셋째,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교제이다.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신앙고백과 헌신으로 대답한다.

넷째, 기독교 예배는 감사와 봉헌이다. 기독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

다섯째,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다. 예배는 우리의 지성, 감정, 태도, 소유, 모두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⁸⁾

여섯째, 기독교 예배는 교회의 종말론적 기능이다. 텔링(Delling)은 이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데서 끝을 맺는다고 했다. 교회는 예배의 경축에서 구소그이 종말론적 성취를 보고, 종말론적 교회로서의 자신을 알아차리고 종말론적 완성의 소망을 갖는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절대자이며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모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계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찬양과 봉사로 응답하는 대화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찬양하고, 축하 하는 축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7)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 종로서적, 1991), p.232.

8) F.M.지글러 op. cit., p.24.

3. 예배의 목적

예배(Worship)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이며 최선의 가치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될 때에는 이미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드려 복종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한 사람의 인격적인 믿음안에서의 사랑 어린 응답이다.⁹⁾ 본질적으로 예배는 그리스도안에서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이다. 이 의식적인 관계는 예배자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형성하신다. 이것이 참된 예배가 결코 경건한 영혼을 싫증나게 하지 않는 이유이다. 참된 예배는 교회의 통일성을 가져오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뜻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를 위해 성도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며 그의 사역에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다.¹⁰⁾

B. 예배의 성서적 근거

9) Ibid., p.26.

10) 방지형, 기초예배학,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p.26.

1. 구약의 근원

a. 족장시대의 예배

에덴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며 섬기며 살았으나 타락후 그러한 직접적인 교제는 단절되고 말았다. 즉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의 직접적인 예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단이 필요했다.¹¹⁾

성서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에 관한 언급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희생 제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제사 행위로서 예배를 생각하게 된다.¹²⁾ 두 번째 제사로는 노아의 제사로서 홍수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속적인 의미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써 제사와 예배로 이해된다. 세 번째 제사로는 아브라함의 제사로서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감사 예배로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족장시대 제사의 공통성은 번제의 행사로 이루어졌던 희생의 예배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약 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전제되면서 제사 행위는 곧 하나님과 만남고 교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공예배의 단순한 기원이다.

11) 폴 E. 앵글, 당신의 예배생활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정광욱 역, (서울 : 나침판사, 1987), p.38.

12) 정일웅, op. cit., p.24.

b. 모세의 예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 그 언약을 체결한 상황에 있다.¹³⁾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첫째, 만남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백성들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석했다. 여기서 우리는 참여가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게 된다. 둘째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은 말씀선포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말씀선포가 없이 예배가 완전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모세 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점이다. 성막은 예배가 성립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써 성막에 자신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다음의 몇가지로 보이었다.

첫째, 성막은 “거하시는 처소(Mishkan)”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장소이기 때문이다.¹⁴⁾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 성막을 세운 목적은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의 가견적인 표시인 영광의 구름이 성막 봉헌시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처럼 성막은 광야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구심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모세에게 제의와 율법을 제시 하였고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에 관한 제도, 제사장들의 의복에 관한 규례, 성소에 봉사하는 제사장

13) 로버트웨버, 예배학, 김지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p.24.

14) 폴 E.앵글, *op. cit.*, p.40.

의 위임식과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의 종류와 각종 절기와 그에 따른 규례, 그리고 정결과 속죄, 제사드리는 법, 백성들의 종교적 윤리적 행위에 관한 율법들을 확립 시켰고 특히 절기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와 예식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였다.¹⁵⁾ 이 모든 속죄의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한 대속 사역을 예표한 것으로서 성막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를 내다 보았다.¹⁶⁾

c. 성전시대의 예배

가나안 정착 후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막중심에서 성전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면서 성전의 예배는 극치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제의는 더욱 발전하여 무교절, 장막절, 맥추절의 3대 절기가 성전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지고 성전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십일조와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성전에 모이게 되었다. 그 외에 예배의 표현으로는 음악, 독창, 축송, 환성, 춤, 행렬, 기도, 악기의 연주, 성인들의 교훈과 거룩한 식사와 몸을 씻는 것이 성전 예배에 더 첨가 되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성전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타락하여 형식화 되어 예배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15) F.M.지글러, op. cit., p.36.

16) 폴 E.앵글, op. cit., p.42.

17)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 강귀복 공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2) p.92.

d. 회당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 됨으로써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회당예배가 형성되었다.¹⁸⁾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포로의 신세로서 회당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지속했던 것이 전통이 되었다. 회당예배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신앙을 불러 일으키는 성경교훈을 강조했고 그 후 기도와 설교가 예배에 첨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성전중심의 예배와 회당예배는 성경 가르침을 강조했고, 둘째, 성전예배는 제사장 중심이었으나 회당예배는 랍비가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셋째, 평신도의 참여가 뚜렷했다.

회당의 예배요소로는 웨마냥독(신6:4-9, 11:12-21; 민15:7-41), 기도, 율법낭독, 예언서 낭독, 강해와 권면, 축도 등 이었다.¹⁹⁾ 성경의 가르침이 회당예배의 기본적인 기능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의 교회예배에 있어서도 성경이 주된 위치가 되고 있음을 회당예배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2. 신약시대의 예배

a. 예수시대의 예배

예수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시대의 신앙과 경건의 전통에 따라서

18)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0), p.12.

19) F.M. 지글러, *op. cit.*, p.42.

살았다 이 때에는 성전예배와 회당예배가 병행하고 있을 때 였다. 성경은 예수 자신이 어려서 성전에 참석했으며(눅2:41 이하), 공생애 기간에는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막14:49;눅4:16).

예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예수의 태도는 성전예배나 회당예배를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심으로써 예배의 본질과 실재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예수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신약시대 교회 예배의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마6:17-29)에서 떡과 나눔을 통하여 새언약과 결부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셨고 이 축제는 초대교회 예배를 위한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다.²⁰⁾ 둘째,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실제로 성취시키셨다.²¹⁾ 마지막으로 예수는 죄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을 함으로써 지성소에서 희생제사로 드리는 성전예배의 종결을 고하게 하였다.

b. 사도시대의 예배

사도시대의 교회예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사도행전 2장42절에 함축적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것은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20) 정일웅, op. cit., p.40.

21) 김소영, op. cit., p.23.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의 방식은 회당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제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예배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전도형식의 예배를 취했으며, 예배의 순서는 기도, 찬송, 성서낭독, 가르침, 예언, 방언과 축도로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²²⁾

이 때의 예배는 통상적으로 밤에 가정집에서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한 장소에 모이면 주의 만찬을 겸한 아가페(agape)라고 하는 사랑의 식사를 나누었다. 이 식사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거룩한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전11:17-34).²³⁾

사도시대의 예배는 성전과 회당, 그리고 특수집단으로 모인 장소로의 예배로서 이러한 예배들이 서로 융해되어 새로운 예배의 규정이 만들어 지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C. 예배의 역사적 배경

1. 초대교회의 예배

일반적으로 기독교 예배의 역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2세기 중간이나 3세기 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처음 몇세기의 기독교 예배의 발전에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²⁴⁾ 그 이유는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22) Ibid., p.24.

23) 오봉석, 주일낮 예배개신의 이론과 실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29.

24) F.M.지글러, op. cit., p.48.

예배에 대하여 알수 있는 문헌 다섯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의 클레멘트가 주후 90년경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클레멘트는 교인들을 권하여 말씀을 읽고 죄를 회개하고 예물을 바치도록 했다. 둘째로, 주후 112년경 소아시아 비시니아의 총독인 플라니가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로 그의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 모임이 주일에 있었고 악을 삼가기 위하여 성례전으로 자신들을 결속했다고 했다. 셋째로, 디다케라고 불리우는 12사도 교훈집에서 세례의 양식을 발견할 수 있으며, 넷째로 주후 14년경 저스틴이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에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일반적 개요를 볼 수 있다.²⁵⁾ 마지막으로 주후 21년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전승이 있다. 이 문헌들을 참고하여 종합해 보면 이 때의 예배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먼저 예배자의 마음을 주께 드렸다. 둘째,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 및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아멘의 응답을 활용 하였다. 셋째,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고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의 성취와 실현의 전파로 나타났다. 넷째,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와 헌신을 표현했다. 이 예물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성도의 관심을 나타낸 것이었다.²⁶⁾ 다섯째, 공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

25) 로버트 웨버, 예배학, 김지찬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4판), p.55.

26) 정일웅, *op. cit.*, p.66.

다. 마지막으로 성만찬 및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구속사건의 새로운 다짐과 은총의 경험적 신앙을 갖게 했다.

2. 중세교회 시대의 예배

중세시대는 한마디로 예배의 의미에 변화를 가져온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에 소집단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한곳에 집결하게 되었고 이들의 수용을 위해서 대형화된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²⁷⁾ 따라서 다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집전을 위하여 성직자의 위치와 권위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예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예배의 조건들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전주의(sacramentalism)와 성직주의(sacerdotalism)의 신학적인 제도에 기인된 결과였다.²⁸⁾ 이러한 예배는 부작용이 미쳐 신비종교와 이방종교의 어떤 풍습이 첨가하여 구약의 제사로 되돌아 갔고, 감각에 호소하므로 많은 미신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5세기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는 인위적인 정교한 형식으로써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미사의 발전이 있었고 일정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강조 되었다.²⁹⁾ 이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고 의식과 예전이 되어 갔

27) 정장복, op. cit., p.44.

28) F.M.지글러, op. cit., p.52.

29) F.M.지글러, op. cit., p.48.

다. 그리하여 설교없이 행하여지는 예배가 되어갔다. 그결과 중세기 교회에서 기독교 공예배의 원형인 말씀과 성례전파의 균형이 상실되어 구약의 성전제사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다. 동방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예배가 신비주의 의식처럼 되었고 서방교회에 있어서는 미사의 화해적 성격을 강조하여 모든 종류의 악폐를 유발 시켰고 회중은 예식의 참여자이기 보다는 단순히 방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중세기의 예배의식은 상징들 자체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너무나 객관적이었고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는 회중의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³⁰⁾

3.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교회문에 그의 95개 조문을 내어 거는 것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이 폭발하기 전부터 이미 중세기 예배의식에 대한 반대의견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다.³¹⁾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결과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루터파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루터의 예배관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30) Ibid., p.54.

31) ibid., p.56.

첫째,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반복이라는 사상을 배척했다. 둘째, 화체설 대신에 공재설을 주장했다. 셋째, 주님의 만찬이 중심이 되는 의식이었다. 넷째,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도록 권장하였다. 다섯째, 살아계신 말씀과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귀어 있었다. 여섯째, 루터교는 라틴어와 의식적인 등불과 분향 및 제복을 사용하여서 로마교회와의 옛관계로 되돌아 갔다.

루터의 예배는 완전한 개혁에는 실패하였으나 예배용 찬송을 발전시켰으며 말씀과 성찬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쾰빙글리(Zwingli)는 예배에서 더 한층 단순성과 윤리적 실재성을 추구하였다. 그는 미사를 예배의 규범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말의 상징 외에 다른 모든 상징을 예배에서 배격하였다. 그는 음악을 철폐하고 시편과 성가의 교송적 낭독으로 대치하였다. 소박성이 예배의 실천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과 루터의 공재설을 배격했다. 그는 결국 성만찬이 없는 회당예배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³²⁾

칼빈은 개혁신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식의 예식서를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칼빈은 예배의 두 중심점을 설교와 성경에 두었다.³³⁾ 그는 공예배 의식의 표준은 성경과 고대교회의 관습에 두고 있었다. 칼빈은 성만찬 이해에 있어서는 루터와 쾰빙글리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칼빈은 영적임재설을 강조했다. 이러한 칼빈의 성찬신학은 루터의 독일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칼빈의

32) Ibid., p.58.

33) 정장복, op. cit., p.169.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다.³⁴⁾

이처럼 종교개혁은 불후의 흔적을 남겨 놓았으며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공예배에 대한 종교 개혁의 공헌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³⁵⁾

첫째, 예배가 모국어로 교인들의 이해를 돕는 단순화된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둘째, 예배에 있어서 회중들의 참여가 회복되었고, 개인이 시편과 찬송가를 부름으로 자신들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예배에서 말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말씀과 성례의 균형이 회복되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가 보충되어 잡다한 첨가물들을 제거하였다.

4.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루터파와 영국 국교회(Anglican)는 로마 카톨릭의 예전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 들였고, 쾰빙글리와 재세례파는 급진적인 자세를 위하여 모든 의식을 이교적인 것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전승과 많은 예배의식을 제거하였다.

개혁파 교회는 이 양자간의 입장을 취했다. 마틴 부처는 루터파 견해에 쾰빙글리의 강조점을 결합시켜 스트라부르그식 예배를 발전 시켰다. 이같은 부처의 종합적인 태도를 이은 칼빈의 예배관은 개혁파 교회의

34) 정일웅, *op. cit.*, p.93.

35) 폴 E. 앵글, *op. cit.*, p.151.

중요한 예배관이 되었다.³⁶⁾ 이 세대에 있어서 예배특징은 정통주의는 예배의 형식적인 보존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예배의 내적인 생동력을 잃어버린 시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에 비하여 경건주의는 교회의 정통주의적 모습을 탈피하고 기독교 예배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예배의 중심을 설교에다 두고 다시금 설교 부흥시대를 탄생 시킨다.³⁷⁾ 그 때문에 경건주의는 확고한 순서에 의존된 예배보다 더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를 만들어 낸다.

그런 후에 합리주의적 영향에 의한 예배가 나타나는데 인간의 삶에 윤리적 행위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예배를 강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합리주의는 전승된 예전의 본 의미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예전의 형태조차도 붕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행이도 현대는 다시금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모범을 찾고자 하는 예배모범 운동이 고조되어 예배당 안의 구조, 성직자의 역할 등 예배의 예전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³⁸⁾

D. 예배의 신학

건전한 신학은 예배의 교정자로서 이바지 하고 참여배는 신학의 원동력으로서 이바지 한다. 그러므로 예배와 신학은 함께 결합하여 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유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힘있게 해준

36) 정일웅, op. cit., p.98.

37) Ibid., p.116.

38) Raymond Abba, 기독교 예배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1), p.55.

다. 예배의 신학적 기초를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구원제시에 기초한 예배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언어 안에서 말씀으로 표현 되었고 기록된 말씀으로써 성경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금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예배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것이다.³⁹⁾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들이는 자들로부터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통해 받으시며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매 주일 예배의 중심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이러한 나타남은 성경낭독과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기도와 찬송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리고 성찬의 신비와 연합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그의 음성을 들음이요, 믿음의 역사에 근원이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중심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 의한 찬양과 감사가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바

39) 정일웅, op. cit., p.125.

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구원 은혜의 역사 그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에 기초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독교 예배의 기독교론적 기초는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중보자로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독교 예배의 기독교론적 기초는 그리스도 사역의 우주적 성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⁴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 사역이 창조, 타락, 성육신, 죽음, 부활, 종말이라는 상황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3. 성령안에서 예배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현대의 가장 큰 이단은 성령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데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의 모든 포부와 영적인 모든 성취는 성령님의 활동이다.⁴¹⁾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현현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며, 사람들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하여 그들의 범죄행위를 지적해 주시며 예배하고 활동하는 교회를 감동하고 인도하신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4절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학적 의미를 밝히는 말씀이다. 성령안에서 예배는 성령

40) 로버트 웨버, op. cit., p.122.

41) F.M.지글러, op. cit., p.80.

역사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써 역시 말씀과 성례는 성령의 객관적 사역의 증표로 이해하게 된다. 기독교의 성령 안에서의 예배란 성례를 통하여 임하여 오시는 성령에의 참여를 뜻한다.

4. 종말론적 사건으로서의 예배

기독교 예배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들의 새로운 삶으로써 예배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즉 종말의 완성으로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이미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에 의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역사적 종말의 시간 사이에서 드리는 종말론적 예배인 것이다.⁴²⁾

42) 정일웅, *op. cit.*, p.128.

III. 한국교회와 예배갱신

A. 한국 개신교 예배의 체유형

한국교회의 특징의 하나는 다양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일에는 새벽기도에서 시작하여 낮예배, 저녁예배(오후)가 있으며, 주간에는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구역예배, 금요 철야기도회 등의 모임이 예배의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훌륭한 성가대가 예배에 동반되며 힘있는 큰 교회들은 악기 사용을 동반한 장엄한 미의 예배를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저녁예배의 시간에도 이루어 진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의 예배에서는 특별히 가스펠송의 사용과 함께 음악과 악기를 동원한 활동적인 예배가 유행한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도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한 몸짓의 율동을 동반한 성가대의 찬양이 유행하기도 한다. 한 때는 탈렌트나 코메디언 그리고 가수 크리스찬이 중심하여 인도되는 전도집회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종 예식이 모두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결혼식, 장례식, 추모식도 예배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사업체나 기업에서 그리고 근무하는 직장과 회사 등에서 신우회의 이름으로 직장예배가 이루어 진다. 그야말로 지금

은 예배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다.⁴³⁾

이러한 한국교회 예배의 다양하고 다원적인 형태와 상황을 전제할 때에 과연 우리의 예배 이대로 좋은 것인가? 올바른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다원적 예배가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이해가 왜곡되고 예배의 실체가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예배갱신의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한국교회에 실재하는 예배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 관계에서 분석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는 기존 교회의 예배형태에서의 유형이요, 다른 하나는 새롭게 시도되는 유형의 예배 형태이다. 이러한 구분 안에서 다시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제로 나타나는 유형을 따라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유형

a. 설교중심의 예배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예배는 한마디로 설교를 중심한 예배가 지배적이다. 그러한 유형은 장로교회의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설교중심의 예배는 설교를 통하여 예배 참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데 있다. 그 때문에 설교

43). 정일용, .op. cit., p.282.

중심의 예배에서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설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에서는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설교 이외의 순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설교파 교인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⁴⁴⁾ 그래서 설교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강단의 위치는 높아져서 강단에서 축복과 저주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혹자는 비평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설교중심의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배 참여자에게 말씀으로서 감동을 주려는 의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설교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중심의 예배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예배에서 표현되는 모든 순서가 설교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순서 전체가 말씀과 연관된 예배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

b. 성찬을 잇고 있는 예배

한국교회 예배 유형에는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설교중심의 예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에는 역사적인 전통과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로마 카톨릭의 성찬 중심의 예배를 개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루터나 칼빈, 그리고 서구의 종교개혁자

44) 정용섭, 교회갱신의 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0), p.226.

45). Ibid., p.227.

그 누구도 쓰빙글리의 제안이었던 년4차례의 성찬도 두 번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는 성찬을 거의 잊어버린 교회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⁴⁶⁾ 말씀과 같이 성찬도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은혜의 수단이라면 당연히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c. 성직자 중심의 예배

전통적인 교회들의 설교중심의 예배는 역시 인도자 중심의 예배로써 특징지워 진다고 하겠다.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직자 중심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공동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⁴⁸⁾ 한국교회가 예배의 공동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예배 인도자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신도들의 예배에서 역할이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배의 역할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예배의 공동성이 살아날 것이며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이다.

d. 은사의 경험을 중심한 예배(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는 성령은사 운동을 강조하며 성령충만과 성령세례를 받기를 강조한다. 특히 개인적인 은사의 체험과 은사의 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예배는 성령의 경험을 지

46) 정일웅, op. cit., p.291.

47) 정장복, op. cit., p.198.

48) 정일웅, op. cit., p.292.

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회중의 주관적이고 자발적인 표현들이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 되거나 오히려 자기 초월의 경험과 동일시 함으로써 인격적인 성령의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감동적이며 주관적인 체험이 예배를 더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깊은 대화가 기대되기 어려운 예배로 보여지는 것이다.

2. 선교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유형적인 예배

a. 음악을 중심한 예배의 새로운 시도

예배에서 음악사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노래부름을 통하여 신앙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멜로디와 시적인 내용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동시에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에서의 음악을 통한 노래 부름과 악기의 사용은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되는 것이다.⁴⁹⁾ 한국교회는 일찍이 주일의 공 예배에서 찬송의 부름과 성가대의 사용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 왔으며, 벌써 오래전에 주일 저녁 예배의 시간은 자주 찬양 예배로 명명하여 음악을 중심한 예배가 실천되어 왔으며, 70년대부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용한 복음송이 한국교회에 전해지면서부터 부분적으로 한국교회의 예배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찬양운동은 몇몇 선구적인 젊은이들에 의해서 1960년대부터

49) 김철륜, 교회음악론, (서울 : 호산나 음악사, 1991), p.64.

펼쳐져서 1970년대 중반 예수 전도단의 화요모임과 중앙대의 기독교 학생 씨클인 SCM(student christian Movement)에서는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 모임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찬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개교회의 찬양모임과 찬양사역을 위한 음악 선교단이 태동하기 시작을 하였다.⁵⁰⁾

1980년대에 와서 찬양운동은 비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전히 찬양과 예배만을 위한 모임인 두란노 목요찬양이 시작되면서이다. 이 모임은 현재 매주 약 2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찬양모임으로 발전했으며 개교회에 찬양의 불꽃이 퍼져 나갔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평일 저녁에도 수많은 찬양과 경배모임이 일어나게 되었다.⁵¹⁾ 이러한 유형의 예배성격은 음악을 통한 은혜의 감동과 하나님의 경험에 영향을 주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의 해야 할 것은 예배자들이 감성적으로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곧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경험한 은혜의 증거와 동일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적인 수단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청중을 동원하는 수단이나 인간의 자기초월을 경험하게 하는 감성적인 효과만 의도한다면 그 예배는 일시적이며 제한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⁵²⁾

50) 정종원, 주일 저녁예배의 갱신에 관한 연구, (김리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38.

51) Ibid., p.39.

52) Ibid., p.48.

b. 특수한 공동체로서 예배

현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유형적 예배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선교차원에서의 문화유형적 예배이다. 이러한 예배는 특수한 공동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군사문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군인교회의 예배로서 군무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선교를 목적으로 기존 교회의 군선교 전략과 함께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⁵³⁾ 셋째, 직장인들의 예배이다. 이것은 교회의 주일예배이기 보다는 직장 생활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간단한 경건의 시간으로서 이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환경에 실천되는 예배 유형으로서 기독교 학교들의 예배로서 학원의 복음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이다.

c. 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변화

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변화는 대형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차례의 주일 예배의 반복적인 유형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수의 회중을 하나의 예배 공간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취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의 시간을 효과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⁵⁴⁾

53) 정일웅, op. cit., p.296.

이러한 현상으로써 새로이 시도되는 예배형태는 역시 주일저녁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로 옮겨지는 형태에서 발견된다. 현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휴일의 의미가 중요한 삶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더 유용한 방향으로 효과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인들의 문화적인 생활의 변화 때문에 교회의 예배생활도 결코 이러한 환경적인 요구를 피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에서 필연적으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예배가 이루어 지도록 예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B. 기독 청소년 문화와 예배

청소년기는 하나의 완전한 인간, 즉 성인이 되어가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있다. 또한 시대와 더불어 인간발달의 급격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의 연구는 계속 새로워져야 하며 문화 역시 시대에 따라 그 양식이 변화하는 자체의 속성상 청소년 문화의 연구는 더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과 덧붙여진 문화 명령의 영역에 청소년 문화도 예외가 아님을 알게하며 성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지금 청소년으로써 동참케 하는 사명의식으로써의 당연성이 요청된다.

54) Ibid., p.298.

1. 청소년 문화의 이해

a. 청소년 문화의 개념 및 성격

청소년기가 되면 그는 부모와 일치에 선 범주에서 벗어나며, 자신은 부모와 다르다고 단정을 한다.⁵⁵⁾ 그리고 주변인이 처지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시위하고 싶은 충동에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즉 처지가 비슷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감을 찾으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케니스턴(Keniston)은 사회양식에 공동체와 사회로 표현된, 진행중에 있는 전이적인 의미와 상징 체계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걸맞는 규범, 신념, 가치를 공유하는 청소년들의 하위사회(Sub Society)를 가르치는 말로써 청소년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⁵⁶⁾

산업화되고 도시화, 기술화된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는 이처럼 그 자체 스스로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없고 하위 문화적인 성격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하위문화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발전되는데 있다. 그것은 곧 청소년 문화가 반 문화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도문화와 기성사회의 잘못된 방향과 그 성격에 기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5) 로이주크, 워렌벤슨, 교회 청소년 교육의 이론과 실재, 천정용 역, (서울 : 말씀의 집, 1990), p.123.

56) 이혁재,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 연구, (총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18.

b. 청소년 문화의 특성

고정 불변하는 문화는 없듯이 문화가 가진 특성의 하나는 그것은 끊임없는 변동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예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주도문화(Main Culture)에 대한 하위문화인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 변화는 급격하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57) 그러나 수많은 다양함과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게 일치되는 특성 몇가지가 발견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 문화의 특성이다. 소외는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그것은 전통적인 관념 가치의 변화속에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청소년의 속해 있는 가정의 지위, 집단의 지위 또는 집단과의 상이한 체계적 결합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58)

둘째, 자기 만족성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지도를 수용하도록 학습되어 있으며 당장의 쾌락적인 만족 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기존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가 제 멋대로 라는 것은 지나친 염려이다.

57) Ibid., p.21.

58) 배정웅, 청소년 문화의 기독교 교육적 이해,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3), p.26.

셋째, 청소년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쾌락주의에 있다. 청소년은 무책임한 행동과 혼돈된 오늘날이 존재한다는 식의 사고, 관념, 행동, 또한 지나친 우월성의 과시욕과 성적 매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청소년 문화는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종교적인 특성은 문자적 보다는 추상적인 언어로 생각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상징적, 추상적으로 이해하며, 종교사에 관심을 보이며, 성경을 비문자적 은유적, 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지며, 하나님, 예수님, 기도, 악, 교회에 대한 사고는 아동기에 비해 좀 더 지적이고 실제적이며,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성인의 태도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⁵⁹⁾

2.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육성

기독교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문화화 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미래 판도는 규정되어 질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형식적이고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나 “신앙의 진수” 그 자체에는 긍정적이므로 기독교 교육은 문화 현상의 수용을 가지고 그 위에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화 시켜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안목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화이어야 한다.⁶⁰⁾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위한 과제들을 몇몇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

59) Ibid., p.52.

60) 이혁재, op. cit., p.63.

이 나열 할 수 있다.⁶¹⁾

첫째, 기독교 청소년 문화와 일반 청소년 하위 문화 사이의 긴장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교인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관계 지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 문화가 허락하는 그 이상을 청소년 문화로부터 기대하지 말 것,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넷째, 청소년 사역자는 현재의 문화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여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갈등 등을 회피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며 지도해야 한다. 주어진 특별한 문화적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식을 증진 시키도록 한다.

3. 기독교 청소년과 예배

청소년 지도자들은 다음 세대의 예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오늘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차세대의 예배자가 감소 된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형식적이고 조직화된 기존의 예배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목시켜 그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변화 시켜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우선 예배형식은 예배원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주

61) Ibid., p.64.

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많도록 순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⁶²⁾ 공식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경건생활의 훈련의 의미도 되므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배모임을 제정하여 훈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둘째로 예배가 공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확신 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로, 문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즉 찬양, 영상, 성극, 율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교회가 시대의 빠른 변화와 다양성에 무관심 하거나 뒤떨어지게 되면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차 세대의 예배자들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연구가 다양하게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 청소년을 위한 준비가 부족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C. 한국 개신교 예배갱신의 필요성

우리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개혁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함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갱신이 그 당시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니다. 도리어 개혁의 역사적 전통과 그 맥을 이어간다고 자부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자체이며, 우리의 모습 자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전은 봉사와 섬김이 그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의

62) 김소영, 교회와 청소년 지도,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91), p.101.

삶 전체가 예전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그리고 루터의 4대 신학명제인 즉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민인제사장의 원리”의 관점과 칼빈의 Coram Deo의 갱신에서 조명할 때에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의식 갱신 뿐 아니라 교회의 구조 전체의 변화가 오리라 기대된다. 한국교회의 예배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배와 생활이 분리된 예배이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주일 공예배만 드리면 예배의 생활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여 세상에서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문제이다.⁶³⁾ 우리의 전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삶과 전 문화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적인 삶이 되게 해야 한다.

둘째,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예전의 모습에서 한국 교회의 갱신을 인식한다. 만연된 축복의 사상들, 축복의 사도로 이해되는 성직자, 물질적이며, 물량적인 것으로 상관 지워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이다.⁶⁴⁾ 우리의 예배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속죄를 위한 제사행위로 이해되는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모든 질병은 귀신의 장난으로 해석하여 귀신을 쫓고있는 신비주의자들 모습속에서 오늘의 한국교회 예전 갱신의 과제를 인식한다.

셋째, 예전적인 공동성과 연합성의 상실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개혁을 인식한다. 예전적인 공동성과 연합성 상실이란 개인주의가 만연된 사회적 환경에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개

63) 김소영, op. cit., p.9.

64) 한단상,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2), pp.139-140.

인주의적이거나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의 지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로서의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이 개교회주의와 배타적인 교파주의로 붕괴되고 있는 점이다.⁶⁵⁾ 이것은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것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모든 부분에서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연합할 때 예전적인 공동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

넷째, 성장 일변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서 갱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언젠가부터 큰 교회를 이루려는 성장 이데올로기의 지배는 교회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의 모습을 드러내며 목회자 자신들이 서로 경쟁자가 된다. 이미 시장경제 구조에 갇혀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직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는 듯한 교회 성장론과 신학교육들의 실상에서 우리는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질서의 예전을 발견한다. 교회는 목회자가 전인격적인 목회와 세상속에서 실재하는 불의와 모순과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봉사자가 되어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사명을 인식할 때 갱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가치질서와 진리의 등대가 되니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에서 갱신의 필요성을 느낀다. 즉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며 기독교 예전의 본질이다.⁶⁶⁾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전은 자기 중심적인 예전에서 공동체를 위한 예전으로 개교회주의적인 예전에서

65) 정일용, op.cit., p.279.

66) Ibid., p.280.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일에 헌신의 예전으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온 예배형식의 순서에 대한 갱신의 필요성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예배형식은 순서들이 분명한 신학적인 조명도 없이 선교사들에 의해 100년전에 전해진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예배의 형식은 한국 개신교 예배의 형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⁶⁷⁾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즉흥적인 예배를 따르는 경건파에 속한 퓨리탄의 후예들 이었다. 또한 주관적 체험과 구원이 확신을 주장하고 성서를 강조하여 예배의식을 간소화 하였으나 개인적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때문에 선교사들 마다 각기 다른 분파의 교파를 가지고 있었다.⁶⁸⁾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의식을 뒷받침하는 의식 내용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와 이유들을 밝혀 주지 못한데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현재의 목회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에서 지금까지 전승된 전통예배 형식과 의식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형식을 교파를 초월하여 모방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교단에 속하는 교회에서도 그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만큼 예배순서들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개교회적임을 알 수 있다.⁶⁹⁾

그러나 예배하는 순서들은 이와같이 아무 것에서나 모방하여 예배의

6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p.148.

68) 정동섭, *op.cit.*, p.129.

69) 정일웅, *op.cit.*, p.247.

순서로 만든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 순서들을 적어도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성경적이며 역사적이며 교회 실제적인 신학적 이론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의식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에 상응하는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여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에 한국교회는 많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예배 갱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제 그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예배순서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며 어떤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형태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바람직한 예배의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V. 개혁주의 예배모범 연구

A. 개혁파 교회의 예배 특징

역사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그 신학에 있어서 몇가지 특징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말씀 중심의 신학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학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 본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브라이너(L.K.A.Briner)는 개혁파 교회 예배의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의높임, 순서의 단순화, 공동체로써의 예배로 소개하고 있다.⁷⁰⁾ 이러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혁파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에게서 강조되고 제시된 예배의 성격으로서 개혁교회 예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말씀중심의 예배가 설교에만 국한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위험성이 있다.⁷¹⁾ 이런 전제에서 개혁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설교 하나만이라 생각하는 것은 예배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높이는 일

이것은 삼위일체적 예배로써의 특징 제시와 상응하는 것으로써 역시 개혁교회의 예배는 예전 순서의 전반부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개신교 교회의 특징도 된다.

70) 정달용, op.cit., p.138.

71) F.M.지글러, op.cit., p.151.

3. 자유로운 예배

카톨릭 교회가 예전의 순서를 법적인 의미로 보아 불변적임을 강조한 데 비하여 개신교 예배는 자유로운 예배로 강조되는 것이 예배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예배의 자유적 성격은 예배의 내용을 담아 표현하는 예배형식과 의식에 관련하여, 예배가 의식에 의존하되 그 의식에 전적으로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적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적 특성이라는 것은 결코 순서를 무시한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다.⁷²⁾

4. 공동성의 특징

예배는 혼자서 행할 수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교회란 본 뜻이 언제나 공동성을 전제하고 있듯이 예배는 공동체와 만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예배는 공동의 역할자를 필요로 하고 봉사자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자나 회중이나 어떤 역할을 맡은 자도 모두 예배드리는 자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B. 예배의 모범을 결정하는 원리

예배모범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다.⁷³⁾ 참된 예배

72) 정일웅, *op.cit.*, p.140.

73) 폴.E.앵글, *op.cit.*, p.89.

는 성경에 바탕을 둔 요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금하는 것이나 특별히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배모범을 결정하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분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전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21조항)

예배모범을 규정하는 구약의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규정하셨다. 그러나 율법의 원리들을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교회의 예배의 규범으로서 간주해서는 안된다.⁷⁴⁾ 신약의 예배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지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교훈을 받는다. 즉 그리스도는 예배의 적절한 내용을 계시하심으로써 예배를 주관하신다. 그리스도는 예배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규범을 통하여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신다.⁷⁵⁾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예배 모범을 규정하는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예배모범을 규정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예배모범을 규정하는 원리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 무오한 법칙이므로 공예배의 원리도 성경에서 나와야 하며 다른 근거에서 나올 수 없다. 참 예배는 성경에 바

74) Ibid., p.90.

75) Ibid., p.94.

탕을 둔 예배 요소로 구성된다. 예배순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성경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이 금지하거나 성경에서 유래되지 않은 어떤 것을 예배에 도입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되게 되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실용주의 철학이나 전통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위에 두어야 한다. 예배에 도입하는 모든 순서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⁷⁶⁾

우리가 이 기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예배의 사정들이 즉, 예를 든다면 주일낮 예배 모임시간, 좌석의 형태 같은 것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모범을 규정하는 원리를 다른 교파 신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망이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만을 드릴 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C. 예배모범의 구성요소와 순서의 배열

1. 예배의 구성요소

이제 우리는 예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헨들러(O.Hendler)는 예배의 요소란 예배의식을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뜻하며, 그 의식의 순서들의 유기적 결합을 위하여 예배를 구성시켜 주는 형식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76) Ibid., p.98.

하였다.⁷⁷⁾

원래 개혁교회는 예배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 103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문 : 하나님의 제4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답 :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독교인의 구제에 참여해야 한다) 말씀과 성찬, 기도와 봉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문서 제 183문에서도 비슷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177페이지에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제시한 몇가지 기준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⁸⁾

먼저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이란 성수주일에 대한 지침이 전제되고 있으며 “교회 회집과 예배 때의 행위”에 대한 지침서에서 성경봉독사와 찬미 공식기도, 강도, 성찬, 헌금 등이 말씀중심 예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성경봉독, 강도), 성찬, 찬송, 헌금 등이 기본요소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예배순서의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77) 정일용, op. cit., p.141.

78.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92, 재판), p.177.

a. 성경 봉독과 성경 강해

어떤 예배에도 전체적인 요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기반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적예배(롬 12:1)이다.⁷⁹⁾ 성경은 항상 공예배에서 성경 읽을 것을 명령했고(딤후 4:1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예배에서 선포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전파하라”(딤후 4:2)와 같은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호소한다.

b. 기 도

기도의 신학적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높이는 이로서 예배에서의 기도는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참 이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공기도의 표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부분의 간구와 총 여섯가지의 간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⁸⁰⁾ 첫 부분은 주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름에 대한 기도이며, 두 번째 것은 인간의 필요를 간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기독교 예배가 어떠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수를 보여주는 모범 기도라고 할

79) 폴 E. 앵글, op. cit., p.107.

80) F.M. 지글러, op. cit., p.132.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순서의 기도예 해당되는 것은 묵도, 개회의 기도인 기원, 중보기도, 목회기도, 교독문, 헌납기도, 축도가 있다.⁸¹⁾

c. 성찬 (주의 만찬)

성찬은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적인 사건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식을 재정하시면서 유월절의 옛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새 언약의 시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 아래서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빵조각과 포도즙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고전11:26)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으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떡과 포도주 안에의 그리스도 임재를 거부하고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실재적인 영적 임재를 인정한다.⁸²⁾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과 의 교통과 연합을 나타내는 예배의 실제적인 목표라고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성찬의 예전의 중심에 세웠던 것은 옳은 일이나 다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의 들음 없는 성찬을 행하려 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은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 했지만 종교개혁적인 의의를 지나치게 설교에만 국한시킴으로서 또 다시 예전에서 말씀과 성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딜레마를 안게 되었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예전과 그 가운데 장로교의

81) F.M.지글러, op. cit., pp.137-139.

82) 폴 E. 앵글, op. cit., p.111.

예배는 이러한 문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⁸³⁾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성찬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말씀과 성찬이 함께있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d. 세례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마28:19). 세례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외적으로 드러난 가견적인 하나의 표(sign)와 인호이며 회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앞에서 실시되어야 한다.⁸⁴⁾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하나의 표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됨에 대한 하나의 표이며, 구약의 할례의 표에 상응한다. 세례는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표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하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다. 세례는 또한 세례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하나의 표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일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다.

e. 찬송

히브리서 13:15은 예외 없이 찬송을 찬미의 제사라고 일컫고 있다. 이처럼 찬송은 구약시대 이래로 온 역사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83) 정일웅, op. cit., p.145.

84) 폴. E. 앵글, op. cit., p.112.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히브리인들은 찬양에 대해서 셋으로 구분을 하였다. 첫째는 “할랄(halal)”로서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말(zamar)”로서 노래와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고 마지막 “야다(yada)”는 몸동작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 했다.⁸⁵⁾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전 14:26;엡5:18).⁸⁶⁾ 주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미했다.

찬송이 공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활용되기 쉽다. 그것은 찬송을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과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을 지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이 전후 예배 순서와 무관한 경우도 흔히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찬양만 합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f. 헌 금

그리스도교 예배에 있어서 예물리 헌납은 하나님께 대한 보답과 감사의 효시이다.⁸⁷⁾ 성도들이 금전으로 드리는 헌금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빌 4:18에서 사도 바

85) 방지형, op. cit., p.135.

86) 폴. E. 앵글, op. cit., p.105.

87) F.M. 지글러, op. cit., p.182.

울은 말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매주 첫날(주일날)에 모일 때마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며 일정한 비율의 기준을 바탕으로 헌금을 드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전 16:1-2).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자신의 내적이며 영적인 헌신에 대한 하나의 밖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표이다.⁸⁸⁾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모든 소득의 첫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 받았다. 그러므로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만큼 예배의 한 행위이다.

g. 신앙고백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산 예배가 되는 것이다. 많은 자유교회에서는 고정된 신조 사용을 배격한다.⁸⁹⁾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은 계획된 예배순서에 그들 자신의 간단한 신앙고백이나 그 확인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공예배에 신앙고백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중에게 성경의 건전한 교리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⁹⁰⁾ 이런 신앙의 확신은 그리스도에게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헌신을 불러 일으켜 준다.

88) 폴. E. 앵글, op. cit., p.108.

89) F.M. 지글러, op. cit., p.185.

90) 폴. E. 앵글, op. cit., p.109.

h. 교 제

예배에서 교제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한 순서에 성도간에 범사의 소식을 나눔으로써 한마음이 되고 서로 기쁨과 고난에 참여하는 주요한 교제의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예배순서에서 등록된 교인이나 그 주일예배에 새로나온 신자들을 환영하는 순서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친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제가 주일 예배의 한 순서에만 국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속에서 늘 성도들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i. 축 도

축도 사용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는 아론의 축도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두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민 6:22-27). 이것은 회당에서도 행하여 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때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고후13:13)⁹¹⁾ “아멘”.

91) Ibid., p.114.

2. 예배 순서의 배열의 구성원리

예배순서를 어떻게 배열해야 할 것인가는 앞서 생각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크게 말씀중심의 예배와 성례중심의 예배와의 구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

a. 말씀 중심의 예배형식

E. Lange의 예배구성의 이론에 따르면 이사야 6:1-11의 말씀과 눅5:1-11의 내용에서 말씀중심의 예배 구성의 원리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순서가 전개 되기를 바란다.

첫째, 예전의 참여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행위를 인식하고(죄, 고백과 용서의 선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할 것이다.⁹²⁾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하며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 말씀의 위로와 언약을 청위함으로써 가능케 된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92) 방지형, op. cit., p.174.

새롭게 되며 믿음이 강화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천적 사역에 자신을 헌신함과 봉사의 결단을 갖도록 다짐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심의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예전의 순서들은 이러한 요소의 기본원리에 적합하게 배열하고 순서의 근본구조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관계가 조화있는 관계로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

전통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의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 순서는 새롭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흐릿하고 틀에 박힌 예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예배 진행을 매주 근본적으로 새롭게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그에게 새롭고 창조적인 예배를 드린 순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b. 말씀과 함께하는 성례예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과 함께 관련하여 성례 예배를 진행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

순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말씀중심의 예배와 관련하여 순서를 진행할 때는 언제나 예배의 세 번째 부분이 헌신과 감사의 부분에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배의 헌금의 순서를 진행하고 난 후에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성찬의 찬송을 부르고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읽고 성찬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강론, 권면한 후 성령 임재의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분명분산을 시행한다. 그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례할 때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느끼도록 적절한 성구의 말씀으로 낭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집례 후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주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 이후는 말씀 중심의 예배순서와 연결하여 예배의 끝마침을 이룬다. 설교에 앞서서 시행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인이 많이 모인 시간에 해야 한다.

D. 예배모범 모델

이제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한 예배모범 원리와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몇곳의 주보를 참고하여⁹³⁾ 예배의 모범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93) 사랑의 교회(혹한음 목사), 온누리교회(하용조 목사), 성수교회(김재규 목사)의 10개 교회 주보를 참고하였다.

1. 주일 공예배 순서의 한 모델

a. 영광과 감사의 부분

* 예배의 부름	-----찬 송-----	사회자와	회중
* 인사와 선언	-----	사 회 자	
* 목 상 기 도	-----	다 함	께
* 예배의 기원	-----	사 회 자	
* 참회의 고백	-----	다 함	께
* 용서의 확증	-----	다 함	께
* 송 영	-----	다 함	께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함	께
대 표 기 도	-----	기 도	자

b. 말씀과 교제의 부분

성 경 교 독	-----	다 함	께
찬 송	-----	사회자와	회중
성 경 봉 독	-----	사 회 자	
찬 양	-----	성 가	대
설 교	-----	설 교	자
응 답 송	-----찬 송-----	다 함	께
사랑의 교제	-----	다 함	께

c. 헌신의 결단과 파송의 부분

예 물 봉 헌	-----	사회자와 회중
봉헌의 감사	-----	사 회 자
교 회 소 식	-----	사 회 자
* 찬 송	-----	사회자와 회중
* 위탁의 말씀	-----	사회자와 회중
* 축 도	-----	사 회 자
* 송 영	-----	성 가 대
후 주	-----	반 주 자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 진행한다. 성찬식이 거행될 때에는 봉헌과 감사순서 다음에 연결시켜서 진행하고 이때는 사도신경을 앞부분에 빼고 성찬시작전에 신앙고백으로 시작 할 것)

d. 예배진행 요령

예배는 반드시 시작 10분전까지 예배 인도자와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 봉사자들은 자기의 위치에 나아간다.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의 부름으로써 사회자와 회중은 함께 예배의 부름에 대한 찬송가를 부른다. 곧이어 사회자는 인사말과 함께 예배의 선언을 한다. 이때 예배의 반주자는 전주를 시작하고 전교인은 묵상기도를 한다. 예배의 전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써 임재를 상징한다. 전주가 끝남과 동시에 사회자는 예배의 기원을 드린다. 보충해설이 필요한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이외의 것은 예배모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한다.

<예배의 인사말과 선언> 사회자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예배의 인사말로 예배의 선언을 한다.

<예배의 기원> 사회자

인도자는 예배에 대한 간단단 기원의 기도를 드린다.

<참회의 기도> 사회자와 회중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주의 음성을 들었리지만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펴라 하실 때 펴지 못했고 구제하라 하실 때 구제하지 못했으며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일하라 하실 때 핑계를 대었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나 쓰임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주여, 이는 우리의 불신앙이오며 불순종이오니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주간의 예)

<용서의 확증> 사회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 때에는 유다의 죄를 찾을 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렘5:20) -아멘

- (한주간의 예)

<응답송> 사회자와 회중

설교 후에 말씀에 대한 감사의 화답으로 응답의 찬송을 부른다.
이어서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위탁의 말씀>

사회 :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회중 :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사회 :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회중 :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예)

2. 바람직한 예배유형과 그 방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배의 유형에서 살펴 본 대로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교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사소통의 양식이어야 한다는 점과 언약갱신의 축재와 의식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삶으로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설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순서의 전체가 말

씀을 나타내며 말씀과 대화하여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예배의 유형이 되기 위해서 E. Lange가 제시하는 예배 유형의 3단계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⁹⁴⁾

그것은 첫째, 예배의 첫부분으로서 사면의 부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인간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이 되며 화목을 성립시켜주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예배의 개회후 무엇보다도 먼저 참회의 기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한 죄용서의 확인 순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음의 핵심은 죄용서의 은혜에 근거하여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만남과 대화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가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통한 대화의 결정을 이루는 순서로써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인된 약속에 대한 삶 희망을 간직하는 순서가 된다.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부분으로써 예배 가운데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약속과 삶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예배자는 새로운 신앙의 헌신의 결심과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순서이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예배에 헌신의 고백과 결단을 위한 상징적 의식으로써 성찬과 연결될 때에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말씀중심의 기본적인 구도에 따라서 다양한 예배의 순서들이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예배모범 모델은 한

94. 정일웅, op. cit., p.301.

가지 예배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전통과 익숙하지 않은 습관 때문에 매주일 예배에 말씀과 성찬이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적어도 월에 한 번씩 첫주의 예배에 말씀과 성찬이 연결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개혁주의 예배가 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예배에 관련된 이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한국교회 예배의 제 유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보다 더 준비되고 다듬어지며 분명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전통적인 교회중심의 예전의 형태와 선교적 상황에서 시도되는 유형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예배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며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대안적 차원에서 개혁주의 예배론에 입각한 예배유형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예배 유형을 제시해 보았다. 이미 바람직한 예배 유형에서 제안한 것 처럼 한국교회의 예배 새로워져야하고 보다 성숙한 모습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성숙된 신앙적 행동과 예배가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들은 말씀중심의 예배로서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다양한 수단으로 표현하는 공동체의 축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배의 인도자나 참여자 모두가 공동적인 표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공동성과 자발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공동적인 마음이 예배에 충분히 표현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만드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책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주어진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방향이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예배의 방향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며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 도서출판 솔로몬, 1993.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 종로서적, 1991.
- 방지형. 기초 예배학 서울 : 성강문화사, 1992.
- 이중기. 교회사 서울 : 세종문화사, 1989.
- 정용섭. 교회개신의 신학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0.
- 김철륜. 교회음악론 서울 : 호산나 음악사, 1991.
-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0.
- 한완상.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 김소영. 교회와 청소년 지도 서울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91.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2.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9.
- 권이중. 청소년 문화와 정책 서울 : 배영사, 1989.
- 김기현. 한국교회 예배의 생활 서울 : 양서각, 1984.

2. 번역서

Segler, Franklin M.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93

Webber, Robert E. 예배학 김진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4.

Rayburn, Robert G.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 공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82.

John MacArthur, Jr.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송영필 역. 서울 : 나침판, 1986.

Engle, Paul E. 당신의 예배생활 정공욱 역. 서울 : 나침판, 1987.

Abba, Raymond.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재 서울 : 대한 기독교 서회, 1989.

3. 연구논문 및 사전

오봉석, “주일 낮 예배 갱신의 이론과 실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93.

이혁재, “기독교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대학원, 1990.

김재철, “한국교회 성례전 갱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